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요인 및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과 생활만족도*

- 생활만족도의 다차원적 구조를 중심으로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Factors, Factors of Accessibility in Children
without Living Together,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le and Female Elderly
- Centering on Multi-dimensional Structure in Life Satisfaction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하춘광**

dept.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
Assistant Professor: Ha, Choon-Kw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te theoretical and policy suggestions on the policy for elderly welfa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male and female elderly. The survey subjects were 403 people over 60 years old who lived in J city of Gyeongsangnam-do Province, with 214 male elderly and 189 female elderly participants. Factors, that commonly had an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the male and female elderly included subjective health level and subjective economic level. A gender difference was apparent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for the male elderly, age had a primary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for the female elderly, academic background, religion,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had a large influence. Accordingly, the female elderly were seen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하춘광 (hachkw@kyungnam.ac.kr)

to be influenced more by environment than the male elderly. This study will help to gener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versity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contribute to improving diverse elements in the environment and to laying out a plan an elderly welfare policy that will increas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ale and female elderly, and offer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that will be conducive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elderly people.

Key Words : 다차원적 생활만족도(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사회인구학적 특성(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 비동거 자녀 접근성(Factor of accessibility in children without living together)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1만 6000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대인구 500만 명과 인구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이다(국가복지정보센터, 2008. 10. 02).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노년층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여러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일생을 통해 사권 계층, 환경, 성별 등의 개별적 다양성을 과소평가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의 노인들은 남녀 차별적 사회풍토 속에서 교육, 사회활동 등 많은 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인의 차이는 노년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축적되어온 결과로서, 노인의 평균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차이(박기남, 2004)를 가지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교

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고 사회활동의 경험이 적었을 뿐 아니라 경제력도 취약한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한 세대이다. 또한 남성노인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긴 여성노인들은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도 많고 기간도 길어서 노년기의 외로움에도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노인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자원이나 역할 등 개인적·상황적 특성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남녀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노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젊은 세대의 남녀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인세대는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되어 새로운 노인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 또한 일반적으로 남녀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있어(권중돈, 조주연, 2000; 고보선, 2003; 강경숙, 2003; 윤선이, 2002, 김태현, 1999) 남녀노인 간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인 두 집단을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노년층의 다양성 가운데 남녀노인의 성별 특성에 관심을 두고,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 가족관계 특히 자녀관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는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의 단일한 척도로 측정되고 있어서,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 개념이고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임희섭, 1996; Bradburn, 1969)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일한 척도에 의해 측정되어 왔던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남녀노인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남녀 노인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환경개선과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나타난 남녀노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써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 특성에 따라 다차원적 생활만족도(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 가치)에 차이가 있는가?

2-1 남녀노인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이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2-2 남녀노인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이 부정적 자

아상과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2-3, 남녀노인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이 자기가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한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사기’(Morale) 또는 ‘행복감’이라는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고보선(2003)은 노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하여 노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상태로 정의하였고, 김미원 등은(2006) 노후 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의미는 활동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만족도이며, 노후생활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경험하는 정도, 용기에 대한 민감도, 목표에 대한 욕망과 성취와의 일치정도, 낙관적인 기분을 갖는 정도,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아를 높게 갖는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싼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우복(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동거가족상태, 생활수준, 교육수준, 과거직업, 종교, 사회교육참여, 노인의 시각연령 등을 제시하였다.

고승덕(1995), 김태현(1999)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종교, 건강수준, 경제수준, 여가활용,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수연(1987)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 경제수준, 용돈, 사회참여도, 가족응집력, 종교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지지와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김애련, 2001; 전봉천, 2005; 윤선이, 2002).

2.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윤진(1982)과 최성재(1986) 등이 개발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통하여 단일한 관점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의 이론적 차원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생활만족도가 하나 이상의 이론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임(최혜지, 이영분, 2006; 임희섭, 1996; Bradburn, 1969)을 밝히고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 구조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radburn(1969)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모두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최혜지 외, 2006 재인용). 또한 Latwon(1983) 등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며 두 요인 모두 복지감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의 다차원적 구조를 정의한 김익기(1997)는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개인의 삶에 부여한 가치의 정도, 긍정적 정서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정도로 구성되었다고 하였고, 최근의 연구로써 최성재(1986)의 단일척도

를 재해석하고 다차원적 구조로 재검증한 최혜지(2006) 등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가치의 세 차원 구조를 노인 생활만족도의 최종구조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고 두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구조에 근거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자기가치’와 생활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타당성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노인의 건강상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순옥(2000)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강(고보선, 2003)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김미옥(2003), 오혜경·백은경(2003),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상태, 배우자 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요인

노인의 경제적요인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자기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였고(송하정, 2001), 박경란(1988)

의 연구에서도 소득의 절대수준보다 주관적인 계층귀속감과 용돈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객관적 측면보다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lemmack와 Roff(1984)는 경제력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지만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력은 곧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Chatfield(1997)는 수입과 경제적 안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은퇴로 인한 수입감소에 의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제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박광희, 한혜경, 2002; 정인숙, 2000; Chatfield, 1997; Ardel, 1997).

3) 자녀관련 요인

자녀관련 요인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녀와 자주 연락하며, 가까이 사는 자녀가 많을수록 물리적 접촉이 증가하고 이는 긍정적 세대 간 관계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지, 2004). 노인의 가족관계와 삶의 질에 대하여 장혜영(1998)은 가족의 지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심리적 변수로서 일상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녀와의 정서적 결속이나 질적인 관계를 들고 있다. 즉 노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이선미, 2003). 한편,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연

구 결과도 상이하여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고승덕, 1995)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박경숙, 2003; 박기남, 2004) 노인의 성별차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고보선, 2003; 김태현, 1999; Celine Mercier, 1998).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녀노인의 삶의 조건의 차이와 만족도의 관련성을 연구한 박기남(2004)은 남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과 주관적 계층귀속감, 자식과의 전화연락 요인을,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교육수준, 용돈액수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자녀요인에 대해서 김정석(2003)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존도가 더 높다고 하였고 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노인의 인구학적 요인,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등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의 J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이용노인의 연령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조사를 위해, 먼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질문지를 성별로 각각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남성 226부, 여성 217부 등 총 44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노인 53.1%(214명), 여성노인 46.9%(189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요원을 훈련시킨 후 지역의 노인복지관, 공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기보고법을 이용하였으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보조자가 글을 읽어주거나 상세 설명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6월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학력(① 무학 및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이상), 연령대(① 65세미만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동거형태(① 독거, ② 자녀와 동거, ③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④ 배우자와 동거) 종교(① 유 ② 무), 주관적 건강상태(① 상 ② 중 ③ 하) 등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남녀노인들의 한달용돈(① 10만원미만 ②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③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④ 30만원이상), 용돈제공자(① 본인 ② 자식), 주관적 경제수준(① 상 ② 중 ③ 하)으로 구성하였다.

3) 자녀관련 요인

자녀관련 요인은 비동거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을 측정하였는데 연락빈도(① 일주일에 한번 ② 한달에 한번 ③ 일년에 한번 이하), 거주지 접근성(① 같은 동네 ② 근교지역 ③ 서울 및 기타) 등 2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4) 다차원적 생활만족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986)가 단일척도로 구성한 생활만족도 20문항을 다차원 구조로 재해석하여 요인분석, 내적일관성을 통한 신뢰도, 내적구조에 근거한 타당도와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traits-multi methods)의 행렬표 분석을 통한 수렴과 판별타당도 조사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3개 차원으로 재구성한 최혜지(2006) 등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3개차원(2)의 영역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9문항,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6문항, 자기 가치 3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각각의 신뢰도는 0.846, 0.810, 0.72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에 대해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은 생활만족도1, 부정적 자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관적'의 의미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관점임

2) 생활만족도1: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문항으로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요즘은 나는 살 맛이 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요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등 9문항이다.
 생활만족도2: 부정적정서와 부정적 자아상으로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피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요즘은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요즘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요즘은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등 6문항이다.
 생활만족도3: 자기가치 요인으로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등 3문항이다.

이상과 부정적 정서는 생활만족도2, 자기가치는 생활만족도3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점수를 역부호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성에서 각각 0.737, 0.683, 0.726이고, 여성은 0.875, 0.756, 0.75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5.0 Win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한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비동거자녀 접근성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비동거자녀 접근성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비동거자녀 접근성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학력은 남성노인들에서는 고졸 이상이 52.2%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무학 및 국졸 이상이 67.9%로 나타나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를 보면 60세부터 76세 이상까지 고른 비율을 나타냈으나 남녀노인 모두 65세에서 70세가 35%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를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비율이 67.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령인구의 특성상 여성노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노인보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남	여			남	녀
학력	무학 및 국졸	57(27.5)	125(67.9)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배우자와 동거	27(12.7)	17(9.0)
	중졸	42(20.3)	33(17.9)			144(67.9)	53(28.2)
	고졸이상	108(52.2)	26(14.1)				
연령대	65세미만	38(17.8)	44(25)	종교	유 무	132(62.6)	152(80.4)
	65세-70세	79(36.9)	66(35.1)			79(32.4)	37(19.6)
	71세-75세	53(24.8)	31(16.5)	주관적 건강상태	상 중 하	51(23.9)	30(16.1)
	76세 이상	44(20.6)	44(23.4)			92(43.2)	94(50.5)
동거형태	독거	21(9.8)	49(26.1)			70(32.9)	62(33.3)
	자녀와 동거	20(9.4)	67(35.6)				

〈표 2〉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 및 비동거자녀 접근성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남	녀			남	녀
한달용돈	10만원미만	47(22.5)	77(41.6)	가족연락	일주일에 한번	155(73.1)	140(75.3)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60(28.0)	46(24.9)		한달에 한번	37(17.5)	21(11.3)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54(25.2)	27(14.6)		일년에 한번 이하	20(9.4)	25(13.4)
	30만원이상	48(22.4)	35(18.9)				
용돈제공자	본인	135(66.8)	78(44.3)	가족거리	같은동네	89(47.6)	81(49.1)
	자식	67(32.2)	98(55.7)		근교 지역	41(21.9)	40(24.2)
주관적 경제수준	상	8(3.7)	5(2.7)	서울 및 기타	서울 및 기타	57(30.4)	44(26.7)
	중	135(63.1)	96(51.1)				
	하	69(32.2)	87(46.3)				

다 7년 이상 길어서 남성노인은 유배우자 비율이 높지만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라 혼자 살거나 자녀와의 동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의 경우는 남녀노인 모두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종교 참여 비율이 20%정도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조사대상 남녀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30% 정도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인 및 비동거자녀 접근성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한달용돈 수준을 보면 남자노인들의 경우는 10만원미만부터 30만원 이상의 네 개 범주에서 20%대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10만원미만이 41.6%로 나타났다. 용돈제공자의 경우도 조사대상 남성노인의 경우 66.8%가 본인이 해결하고 있으나 반면에 여성노인은 55.7%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남녀노인의 비율은 남성(32.2%)에 비해 여성(46.3%)의 비율이 높아서 남녀노인 간에 생애주기 동안 이루어진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이 노후에도 여전히 남녀 차이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여성노인의 경제적 조건이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동거 자녀 연락이나 자녀 거주거리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은 남녀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과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긍정적정서와 주관적만족감,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정서, 자기 가치 등 세가지 요인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와의 접근성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또한 ANOVA 분석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변수	구분 N		생활만족도 M(SD)						
	성별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가치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학력	무학 및 국졸	57	125	2.63(.68)a	2.81(.65)a	3.08(.64)a	3.04(.65)a	2.66(.65)a	2.84(.67)a
	중졸	42	33	2.98(.58)b	3.04(.54)ab	3.51(.65)b	3.41(.66)b	3.05(.79)b	3.12(.77)a
	고졸이상	108	26	3.35(.67)c	3.33(.50)b	3.64(.65)b	3.82(.51)c	3.19(.77)b	3.68(.61)b
	F값			21.975***	8.223***	13.499***	17.202***	9.464***	16.098***
연령대	65세미만	38	44	3.31(.59)b	3.10(.57)b	3.77(.63)c	3.63(.52)b	3.43(.86)c	3.31(.78)b
	65세-70세	79	66	3.19(.56)b	3.07(.63)b	3.65(.64)bc	3.16(.73)a	3.13(.76)bc	3.00(.73)ab
	71세-75세	53	31	3.21(.87)b	2.88(.56)ab	3.30(.62)ab	3.21(.62)a	2.96(.67)ab	2.92(.62)ab
	76세 이상	44	44	2.56(.64)a	2.58(.66)a	3.10(.67)a	2.86(.63)a	2.54(.64)a	2.76(.68)a
	F값			11.368***	6.906***	10.837***	10.953***	10.421***	4.474**
종교	유	132	152	3.14(.69)	2.98(.63)	3.34(.66)	3.23(.72)	2.98(.73)	3.03(.67)
	무	79	37	2.99(.77)	2.73(.74)	3.36(.78)	3.21(.82)	3.10(.87)	2.95(.80)
	t값			1.423	2.140*	-.170	.577	-1.086	.134
동거형태	독거	21	49	2.63(.58)ab	2.63(.71)ab	2.98(.63)a	2.96(.72)ab	2.71(.69)	2.79(.67)
	자녀와 동거	20	67	2.53(.67)a	2.89(.54)ab	3.38(.72)ab	3.02(.64)ab	2.98(.72)	2.91(.68)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27	17	3.11(.67)bc	3.70(.78)b	3.38(.56)ab	3.64(.55)b	2.66(.65)	3.41(.68)
	배우자와 동거	144	53	3.21(.70)c	3.17(.51)b	3.57(.68)b	3.48(.60)b	3.15(.80)	3.15(.79)
	F값			8.223***	6.616***	5.177***	8.712***	4.243**	3.199*
주관적 건강상태	상	51	30	3.48(.47)c	3.45(.50)c	3.69(.62)b	3.80(.56)c	3.34(.88)b	3.54(.80)b
	중	92	94	3.18(.71)b	3.00(.52)b	3.63(.64)b	3.27(.63)b	3.14(.75)b	3.04(.68)b
	하	70	62	2.66(.67)a	2.60(.64)a	3.09(.63)a	2.89(.62)a	2.66(.62)a	2.75(.64)a
	F값			24.465***	24.225***	17.951***	21.877***	13.610***	12.663***

*p<.05 **p<.01 ***p<.001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먼저,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한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생활만족도1, 2, 3은 남녀노인 모두 학력, 연령대, 동거형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여성노인만이 생활만족도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남녀노인의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남녀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동거형태에서는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노

인이 배우자와 동거 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노인들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할 때가 (생활만족도1=3.70, 생활만족도2=3.64, 생활만족도3=3.41) 배우자와 동거 할 때(생활만족도1=3.17, 생활만족도2=3.48, 생활만족도3=3.15)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한국여성노인들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족의존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정석, 2003)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 유무는 남성노인들에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노인들도 생활만족도1 이외에는 종교와 생활만족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남녀 모두 한달용돈, 용돈제공자,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달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전봉천, 2005; 윤성이, 2002, 송하정, 2001; Chatfield, 1997)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용돈제공자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노인들은 본인이 스스로 용돈을 제공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노인들은 생활만족도1에서만 본인이 스스로 용돈을 제공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만족도2, 3에서는 자식 등에게 용돈을 제공받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서 남녀노인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녀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맺는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김정석, 2003)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에 따른 생활만

〈표 4〉 경제적 요인별 생활만족도 차이

변수	구분 N		생활만족도 M(SD)						
	성별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가치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한달용돈	10만원미만	47	77	2.43(.58)a	2.72(.67)a	3.00(.60)a	3.08(.70)	2.46(.60)a	2.92(.69)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60	46	3.27(.78)b	2.96(.54)ab	3.61(.64)b	3.27(.58)	3.14(.73)b	3.06(.74)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54	27	3.25(.53)b	3.07(.53)ab	3.59(.72)b	3.28(.73)	3.35(.82)b	3.07(.83)
	30만원이상	48	35	3.34(.51)b	3.27(.54)b	3.64(.58)b	3.47(.72)	3.10(.79)b	3.14(.72)
	F값			22.233***	7.263***	11.203***	2.807*	13.367***	.895
용돈제공자	본인	135	78	3.22(.71)	3.04(.63)	3.48(.70)	3.24(.70)	3.22(.77)	3.06(.79)
	자식 및 기타	67	98	2.76(.68)	2.84(.61)	3.20(.67)	3.21(.69)	2.70(.68)	3.00(.67)
	t값			4.300***	2.063*	3.865***	.275	4.585***	.584
주관적 경제수준	상층	8	5	3.69(0.53)b	3.71(.42)b	3.62(.72)b	3.73(.76)b	3.79(.77)b	3.46(.60)b
	중층	135	96	3.27(.65)b	3.16(.51)b	3.67(061)b	3.51(.55)b	3.16(.79)a	3.21(.73)ab
	하층	69	87	2.65(.66)a	2.66(.63)a	3.06(.65)a	2.88(.68)a	2.66(.62)a	2.76(.68)a
	F값			23.162***	24.899***	20.967***	24.879***	14.399***	10.124***

*p<.05 **p<.01 ***p<.001

〈표 5〉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별 생활만족도 차이

변수	구분 N		생활만족도 M(SD)						
	성별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가치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자녀 연락	일주일에 한번 이상	153	140	3.15(.72)b	3.07(.57)b	3.54(.63)b	3.32(.64)b	3.03(.76)	3.12(.71)
	한달에 한번 이상	37	21	3.09(.62)a	2.83(.55)b	3.54(.73)b	3.15(.69)b	3.09(.97)	2.66(.89)
	일년에 한번 이하	20	25	2.52(.71)a	2.28(.65)a	2.85(.72)ab	2.68(.76)a	2.85(.80)	2.74(.63)
	F값			4.528***	19.710***	7.389***	10.212***	.373	5.467**
자녀 거리	같은동네	89	81	3.12(.85)	2.96(.62)	3.56(.62)b	3.35(.67)	3.14(.71)	3.07(.73)
	근교의 다른지역	41	40	2.97(.58)	2.96(.66)	3.32(.77)ab	3.16(.74)	2.95(.73)	3.07(.79)
	서울 및 기타	57	44	3.09(.70)	2.79(.70)	3.51(.79)b	3.06(.71)	3.12(.98)	2.94(.74)
	F값			0.522	1.137	2.777*	2.682	.544	.489

*p<.05 **p<.01 ***p<.001

족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자녀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1과 2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만족도3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이 높고, 자식과의 전화연락이 잦을수록(박기남, 2004; 이경신, 이선미, 2003)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녀거리는 남녀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성노인만이 자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2가 높게 나타났다.

2.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명목 변수인 종교(유=1, 무=0), 용돈제공자(본인=1, 자식 및 기타 =0), 동거형태 (배우자 동거=1, 기타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dummy variable).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VIF 값이 5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각 회귀모델의 값은 1.260-1.725 사이의 값을 가지며, 공차한계도 모두 1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회귀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이 생활만족도 1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순서에 따라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1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요인을,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투입하여 이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인 생활만족도1 즉,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남성노인의 경우 1단계에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beta=-.281$)와 학력($\beta=.230$)이 생활만족도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노인의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9.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beta=-.268$)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218$), 학력(β

$=.188$)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38.5%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1단계에 비해 8.8%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beta=-.287$)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주관적 건강상태($\beta=-.197$), 학력($\beta=.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생활만족도1을 40% 설명해주고 있어서 2단계에 비해 1.5%의 증가를 보였다.

여성노인의 경우 1단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369$)가 생활만족도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건강이 좋을수록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이 높았고 이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6.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beta=-.275$)이 가장 큰 영향

<표 6>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관련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남		여		남		여		남		여	
	B	B	B	B	B	B	B	B	B	B	B	B
학력	.196	.230**	.099	.114	.163	.188*	.039	.046	.159	.177*	.005	.006
종교	-.073	-.048	.205	.129	-.100	-.065	.209	.134*	-.125	-.079	.261	.169**
동거형태	.081	.114	.054	.104	.047	.065	.037	.075	.029	.039	.019	.037
연령대	-.073	-.102	-.036	-.063	-.046	-.064	-.060	-.106	-.059	-.079	-.057	-.099
주관적 건강상태	-.272	-.281***	-.338	-.369***	-.216	-.218**	-.246	-.273***	-.206	-.197*	-.229	-.256***
한달용돈					.092	.135	.082	.149*	.083	.117	.053	.095
용돈제공					-.118	-.075	-.042	-.034	-.031	-.018	-.096	-.076
주관적 경제수준					-.373	-.268***	-.313	-.275***	-.411	-.287***	-.276	-.241**
자녀연락									.030	.027	-.288	-.334***
자녀거리									-.036	-.040	.017	.022
R ²	.297		.268		.385		.384		.400		.497	
R ² 변화량					.088		.116		.015		.113	
F값	16.251***		12.418***		13.879***		12.092***		10.179***		13.249***	

*p<.05 **p<.01 ***p<.001

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73$), 종교($\beta = .134$)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38.4%로 1단계에 비해 11.6%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연락($\beta = -.334$)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56$), 주관적 경제수준($\beta = -.241$), 종교($\beta = .16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49.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에 비해 11.3%의 증가를 보였다.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수준($B = -.287$),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97$), 학력($\beta = .177$)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자녀연락($\beta = -.334$),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56$), 주관적 경제수준($\beta = -.241$), 종교($\beta = .169$) 순으로 생활만족도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일수록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비교해 보면, 남성노인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이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박기남(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연락,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종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성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있어서 남녀노인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긍정적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에서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이 생활만족도 2요인에 미치는 영향

<표 7>을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1단계에 연령대($\beta = -.235$)와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00$)가 생활만족도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노인의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연령대($\beta = -.228$)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경제수준($\beta = -.219$),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8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를 32.1%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1단계에 비해 9.2%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연령대($\beta = -.265$)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경제수준($\beta = -.219$),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8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생활만족도2를 35.9% 설명해 주고 있어서 2단계에 비해 3.8%의 증가를 보였다. 이로써 남성노인들의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이며, 이 밖에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이 좋을수록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정서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관련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남		여		남		여		남		여	
	B	B	B	B	B	B	B	B	B	B	B	B
학력	.107	.135	.225	.240**	.064	.932	.221	.232**	.034	.042	.208	.216**
종교	-.007	-.005	-.045	-.026	-.051	-.577	-.034	-.019	-.017	-.011	-.046	-.026
동거형태	.062	.094	.047	.085	.017	.025	.015	.028	.014	.020	.010	.018
연령대	-.158	-.235**	-.070	-.112	-.154	-.228**	-.098	-.156*	-.183	-.265**	-.065	-.101
주관적 건강상태	-.181	-.200**	-.295	-.297***	-.168	-.183*	-.247	-.247***	-.177	-.183*	-.249	-.248**
한달용돈					.048	.075	.008	.014	.016	.025	.036	.056
용돈제공					-.001	-.001	-.291	-.209***	-.016	-.007	-.228	-.160*
주관적 경제수준					-.281	-.219**	-.432	-.339***	-.290	-.219**	-.412	-.321***
자녀연락									-.133	-.127	-.171	-.176*
자녀거리									-.047	-.057	-.040	-.048
R ²	.229		.293		.321		.433		.359		.469	
R ² 변화량					.092		.140		.038		.036	
F	11.607***		14.196***		10.633***		14.900***		8.739***		11.903***	

*p<.05 **p<.01 ***p<.001

여성노인의 경우 1단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297$), 학력($\beta=.240$)이 생활만족도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낮았으며 이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beta=-.33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247$), 학력($\beta=.232$), 연령대($\beta=-.156$)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3.3%로 1단계에 비해 14%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beta=-.32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248$), 학력($\beta=.216$), 자녀연락($\beta=-.176$),

용돈제공자($\beta=-.160$)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를 46.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에 비해 3.6%의 증가를 보였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2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성노인들은 연령대($\beta=-.265$)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경제수준($\beta=-.219$), 주관적 건강상태($\beta=-.183$) 순으로 생활만족도 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정적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주관적 경제수준($\beta=-.321$),

주관적 건강상태($\beta=-.248$), 학력($\beta=.216$), 자녀 연락($\beta=-.176$), 용돈제공자($\beta=-.160$)순으로 생활만족도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고,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식에게서 용돈을 제공받을 때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성노인을 연령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성노인들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 학력, 자녀연락, 용돈제공자 등이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권중돈·조주연, 2000) 남녀노인 모두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애련, 2001; 최순옥, 2000; 고보선, 2003; 박광희, 한혜경, 2002)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여성노인들의 경우 학력이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의 악화,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노후에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가옥 외, 2000; 정경희 외, 1998)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여성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저학력인 상황에서 소수의 고학력 여성들은 좋은 조건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박기남, 2004)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더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녀연락은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원이 되고 있으며, 여성노인들은 본인이 스스로 용돈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식 등에게 의존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적었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존도가 높으며, 경제적 자원과 맺는 관계도 다르다는 선행연구(김정석, 2003)와도 일치한다.

3) 남녀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 접근성 요인이 생활만족도 3에 미치는 영향

<표 8>의 생활만족도3을 보면, 먼저 1단계에서 남성노인은 연령대($\beta=-.269$)와 주관적 건강상태($\beta=-.193$)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1.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연령대($\beta=-.26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197$), 한달용돈($\beta=.156$)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생활만족도 3을 31.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1단계에 비해 10.5%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beta=-.258$)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대($\beta=-.229$)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생활만족도3을 35.7% 설명해주고 있어서 2단계에 비해 3.8%의 증가를 보였다. 이로써 남성노인들의 자기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이며, 다음으로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이 좋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학력($\beta=.288$)과 주관적 건강상태($\beta=-.229$)가 생활만족도3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0.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결과 학력($\beta=.274$)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beta=-.245$), 주관적 경제수준($\beta=-.21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

(표 8) 자기가치

관련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남		여		남		여		남		여	
	B	B	B	B	B	B	B	B	B	B	B	B
학력	.089	.098	.295	.288***	.013	.015	.276	.274**	.045	.049	.236	.231*
종교	-.202	-.125	.018	.010	-.152	-.096	2.57E-005	.000	-.130	-.080	.052	.029
동거형태	.048	.063	.014	.023	.018	.024	.006	.011	.010	.013	.044	.075
연령대	-.207	-.269***	-.030	-.045	-.204	-.269***	-.039	-.060	-.176	-.229**	-.008	-.012
건강상태	-.200	-.193**	-.247	-.229**	-.204	-.197**	-.259	-.245**	-.279	-.258**	-.032	-.301**
한달용돈					.112	.156*	.031	.048	.109	.149	.012	.018
용돈제공					-.123	-.075	-.165	-.113	-.137	-.081	-.098	-.065
경제수준					-.218	-.150	-.285	-.213**	-.190	-.129	-.301	-.224*
자녀연락									.171	.147	-.062	-.061
자녀거리									-.089	-.096	.002	.002
R ²	.214		.202		.319		.265		.357		.299	
R ² 변화량					.105		.063		.038		.034	
F값	10.517***		8.611***		10.427***		6.952***		8.567***		5.673***	

*p<.05 **p<.01 ***p<.001

은 26.5%로 1단계에 비해 6.3%의 증가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비동거자녀 접근성요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beta=.3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학력($\beta=.231$), 주관적 경제수준($\beta=.22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자기가치를 29.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에 비해 3.4%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만족도3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beta=.258$)와 연령대($\beta=.229$)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연령대가 젊을수록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301$)와 학력($\beta=.288$), 주관적 경제수준($\beta=.224$)이 자기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상태가 좋고, 학력이 높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3을 비교해보면, 남성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대가 자기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노인의 경우는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 이외에 남성노인은 연령에 따라 자기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학력이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 때 자기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남녀노인 간에 생활만족도3 요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비동거자녀와의 접근성 요인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가치 등 3개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의 3개 요인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남녀노인의 다양항 특성을 고려한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과 남녀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남녀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자녀연락 등 대부분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종교와 자녀거리는 남녀노인 간에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종교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1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거리는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2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둘째, 조사대상 남녀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녀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노인 실태조사'(한겨레신문, 2009. 06. 30)에 따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준비로는 건강한 신체(51.3%)와 경제적 준비(44.7%)라고 하여 건강과 경제적인 조건이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노인들은 본인 스스로 용돈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식 등에게 의존할 때 생활만족도(2요인)가 높아서 남녀노인의 경제적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노인의 자녀의존도가 남성노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던 자녀관련 요인은 남성노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거리적 접근성은 남녀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노인들은 자녀와

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1, 2요인)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유대감에서 남성노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성노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여성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나 자녀의 지지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녀노인 간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가 남성은 '연령', 여성은 '학력'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들보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고 직업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도적인 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것이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반면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사회생활도 제한적이었던 여성노인들은 학력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차별 받아왔다고 생각할 것이고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수준은 남녀 노인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관심과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노령기에 접어들면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령기의 건강도 지키면서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현재 노후생활을 준비했거나 준비한 노인은 38%에 그치고 있어(한겨

레, 2009. 06. 30) 앞으로도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절실하며 중년기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관심과 노인일자리 창출, 재취업 등 노인들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나 노후대비교육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성노인은 매우 간결한 반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성노인들은 우리사회에서 일정한 직장을 보장받았고 노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여성노인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2008년도 노인 실태조사'에서 남성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8만원으로 여성노인의 40만원보다 2.7배가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 결과만 보더라도 여성노인들은 노후빈곤과 의존적 존재로 전락하여 삶의 질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어서 남녀노인의 성별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반영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재취업 등 여성노인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 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성노인복지제도와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 관련 요인은 여성 노인에서 부분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들의 경우 비동거자녀의 접근성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2008년도 노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60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들은 자식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노인들은 자녀들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자녀

들이 근거리에 살면서 손자녀돌보기, 가사요청 등으로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에 근거한 노인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시점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구조임을 알 수 있어서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한 노인복지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조사대상이 경남의 J시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방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은 보다 다양한 탐색과 측정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경숙. 2003. 일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3), 375-384.
- 2) 고보선(2003). 제주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1-12.
- 3)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5) 국가정보센터. www.e-welfare.go.kr.

- 6) 김경신, 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7-37.
- 7) 김미옥(2003). 장애인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73-97.
- 8) 김미원, 정윤수, 이재성(2006).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실증분석. 노인복지연구 31, 227-250.
- 9)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26(1), 59-77.
- 12) 김태현(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61-81.
- 13)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부와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14)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회 24(3), 13-26.
- 15) 송하정(2001).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오혜경, 백은령(2003).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직업재활연구 13(2), 157-181.
- 17) 윤선이(2002).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초록논문, 26-33.
- 19)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학회 5(1), 5-18.
- 21) 장혜영(1998). 암환자의 자존감과 가족지지 및 질적 삶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전봉천(2005). 대도시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233-258.
- 24) 최순옥(2000). 여성노인환자의 삶의 질.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최혜지(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4(3), 31-47.
- 26) 최혜지, 이영분(2006).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의 재발견. 한국사회복지학 58(3), 27-49.
- 27) 한겨레(2009). 칠순은 돼야 노인. 2009.6. 30. 10면.
- 28) Ardel M.(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1), 15-27.
- 29) Bradburn. M.(1969). The structure of well-being. Chicago, IL:Aldine.
- 30) Brody. E.M., Long-Term Care of Older people: A Practical Guide.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31) Celine Mercier, Normand Peladeau, & Raymond Tempier(1998). Age, gender and Quality of lif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4(5), 487-500.
- 32) Chatfield, W. F. (199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1), 539-599.
- 33) Klemmack, D.L.,& Roff, L.L.(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

- 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756-758.
- 34) Latwon, P.(1983).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er people. *The Gerontology* 46(4), 181-189.
- 35) Perlmutter, M., & Hall, E.(199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36) Quin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2), 57-73.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24일